

미얀마 방정환 기금

어린이는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

미얀마에 동요를!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게 하자.’

지난 8월, 민성숙 선생(지휘 봉사)이 양곤의 빈민지역 어린이를 모아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모습은 어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합니다. 불행한 미얀마에 희망을!

합창단이 처음 부른 노래는 <평화를 위하여> 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세상이 늘 평화롭기를
우리 노래해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새들이 노래하고 피는 꽃마다 향기롭기를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기를
미움을 버리고 함께 웃어요
우리 모두 아름다워지는 평화를

세상이 늘 평화롭기를 우리 노래해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노래해요



100년 전, 3·1운동 실패로 온 국민이 좌절했을 때 방정환은 어린이잡지를 만들고 동요 부르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도 동요로 미얀마의 희망을 노래하려 합니다. 합창단 순회공연과 동요를 녹음해 전국 학교에 기증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동요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얀마의 어린이잡지 기부회원



어린이잡지 기부에 미얀마 사람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이라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빛의 현지 봉사자들입니다. 앞줄 가운데는 잡지 발행인 틴카잉 선생 기부회원 ; 뒤줄 왼쪽부터 조린(한빛직원), 꼬꼬난다(통역) 띠띠쉐(통역), 띠조투(띠띠쉐 남편)

보육원에 놀이기구 기증



방방이(트럼블링) 2개



그네 1개

지난 8월 방문 때는 빈민지역 보육원(핀나메이)에 놀이기구를 전했습니다. 이명자 님(재단기부회원)과 방정환기금회원인 최재화 님과 스텔라 여사님(미국교민)의 선물.

방방이와 그네를 처음 본 아이들 400명이 신바람이 나서 밤늦게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놀이터로 달려옵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결산 보고드립니다

(2023.1~2023.6)

단위 : 원

입 금		지 출	
내용	액수	내용	액수
전년도 이월금	45,150	잡지 구입비	6,350,500
정기기부금	5,584,700	우송료	810,000
특별기부금	800,000	미안마 출장비	347,800
재단보조금	547,800		
계	6,977,650	계	7,508,300

특별기부금 보내주신 분은 **장혜실, 최재화** 님입니다.
 지금 미안마 물가는 날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종이와 인쇄비가 너무 올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방문 때 발행인의 안타까운 호소에 9월부터 잡지 구입비를 월 10만원씩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휠체어날개달기 회원들이 연 3회 방문 때의 항공료와 체류비, 현지 직원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정환기금 회원은 107명입니다.
 이제 기부회원을 더 모셔야 합니다.
 주위에 권해주세요.



9월호 어린이잡지 표지 매월 1,000부 기증

초·중학교 113곳, 보육원 24곳, 모두 137곳의 어린이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잡지를 선물해주신 귀한 분들

()은 입금 월

- 월 112,000원 : 김윤원(7, 8/ 재단이사, 미국 교민)
- 월 66,000원 : 스틸라(7, 8/ 미국 교민)
- 월 50,000원 : 백진양(7, 8) 최재화(7, 8)
- 월 30,000원 : 김원경(7, 8) 조재선(7, 8) 최광규(7, 8) 최준수(7, 8)
- 월 15,000원 : 김부예(7, 8) 김정숙(7, 8) 예옥석(7, 8) 이정애(7, 8) 조정복(7, 8) 최정복(7, 8)
- 월 12,000원 : 성경희(7, 8)
- 월 10,000원 : 강수연(7, 8) 강예슬(7, 8) 강제숙(일산/7, 8) 구은희(7, 8) 구자명(7, 8) 권지명(7, 8) 김정화(7, 8) 김혜명(7, 8) 박봉희(7, 8) 박정희(7, 8) 손경희(7, 8) 유문숙(7, 8) 정명만(7, 8) 정현필(7, 8) 조수연(7, 8) 최영삼(7, 8) 한동훈(7, 8)
- 월 9,000원 : 김유재(7, 8) 심선우(7, 8) 최명숙(7, 8)
- 월 6,000원 : 김순이(7, 8) 배일택/엄지은(7, 8) 윤소암(7, 8) 이민희(7, 8) 최정임(7, 8) 현은옥(7, 8)
- 월 5,000원 : 강명희(6,7,8) 김미숙/김민호(7, 8) 김원숙(7, 8) 김원심(7, 8) 김정묘(7, 8) 박정애(7, 8) 배순호(7, 8) 서동욱(7, 8) 유주희(8) 윤산숙(7, 8) 한미자/정의정(7, 8)
- 월 3,000원 : 강제숙(7, 8) 김미경(7, 8) 김병진(7, 8) 김순자(7, 8) 김연수/김인숙(7, 8) 김연옥(7, 8) 김원애(7, 8) 김원희(7, 8) 김장순(7, 8) 김종배(7, 8) 김주환(7, 8) 김홍원(7, 8) 김홍주(7, 8) 노길용(7, 8) 문해성(7, 8) 민성숙(7, 8) 배성재(7, 8) 배수현(7, 8) 배순석(7, 8) 배재영(7, 8) 배진영(7, 8) 백마강(7, 8) 백정현(7, 8) 서판임(7, 8) 심아진(7, 8) 심혜숙(7, 8) 안영실(7, 8) 오세현(7, 8) 오순희(7, 8) 오승선(7, 8) 윤치영(7, 8) 이미경(7) 이수원(7, 8) 이연희(7, 8) 이유진(7, 8) 이은옥(7, 8) 이풍연(7, 8) 이현숙(7, 8) 이현주/최희자(7, 8) 임경희(7, 8) 임승규(7, 8) 전교수(7, 8) 정미선(7, 8) 정성용(7, 8) 조말연(7, 8) 최광선(7, 8) 최종흙(7, 8) 한영원(7, 8) 흥복표(7, 8) 흥혜경(7, 8)

새 기부회원이 되신 **김미숙/김민호** 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의 방정환 선생처럼 미안마의 전기 없는 농촌학교와 보육원에 어린이잡지를 보내주세요.

방정환기금 입금계좌
 국민 640601-04-006175
 신청전화 : (02) 393-0661
 (월 3,000원부터)

